

相對 時制에 대하여

李 翔 塵*

1

時制(tense)란 어떤 상황(situation)의 時間線上에서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문법법주다. 가령

- (1) a. 아이들이 놀고 있다.
- b.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의 두 문장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상황이 時間的으로 틀리는 바 이같이 어떤 상황, 다시 말하면 어떤 行爲(action), 事件(event), 상태(state)의 時間的 위치를 나타내 주는 문법법주가 곧 時制다.

時制의 가장 일반적인 對立은 ‘現在’, ‘過去’, ‘未來’로의 三分 對立이거나 ‘現在’ ‘過去’의 二分 對立이다. (後者の 경우 未來는 現在에 포함된다. 예로 時制를 現在와 過去로 나누는 대신 過去(past)와 非過去(non-past)로 나누는 것은 이 때문이다.) 時制를 이처럼 現在다, 過去다, 또는 未來다 하고 부를 때 그 시간적 先後 위치를 재는 기준점은 일반적으로 그 상황이 말해지는 때, 곧 ‘말하는 때’(time of utterance, moment of speaking)다. 흔히 (1a)의 ‘놀고 있다’를 現在라 하고 (1b)의 ‘놀고 있었다’를 過去라 하는 것은 그 문장이 말해지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놀고 있다’는 現在의 상황이요, ‘놀고 있었다’는 過去의 상황이라는 뜻에서인 것이다. 時制에 대한 Lyons(1968)의 다음과 같은 定義에서도 時制의 기준 시간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때’가 됨을 읽을 수 있다.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category of tense is that it relates the time of action, event or state of affairs referred to in the sentence to the time

* 人文大 副教授(國語學專攻)

of utterance (the time of utterance being 'now') (p. 305)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은 時制가 늘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 (2) a. 동생이 배가 아프다고 투덜거려요.
- b. 동생이 배가 아프다고 투덜거렸어요.

에서 '아프다'는 두 문장에서 모두 現在形을 취하고 있지만, 만일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보면 (2b)에서 '배가 아프다'는 過去의 일이 될 것이며,

- (3) a. 냇물에서 수영하는 아이들을 보아요.
- b. 냇물에서 수영하는 아이들을 보았어요.

에서도 다 같은 形態의 '수영하는'이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만 보면 (3a)에서는 現在지만 (3b)에서는 過去의 상황이 된다. 그러나 (2b)의 '아프다'나 (3b)의 '수영하는'도 각각 '투덜거렸어요'와 '보았어요' 當時로 보아서는 現在의 상황이다.

이 때 우리가 取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아프다 수영하는'이 때에 따라서는 現在, 때에 따라서는 過去를 나타내는 형태라고 기술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기준되는 때가 다른 뿐 '아프다, 수영하는'은 어느 경우에나 現在를 나타내는 형태라고 기술하는 길이 그것이다. 이 두 길 중 우리는 당연히 後者를 택한다. 前者의 길을 택하면, 가령 '수영하는'의 '는'과 '수영한'의 'ㄴ'의 두 對立되는 形態素의 機能을 구분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아프다, 수영하는'을 늘 現在라고 하려면 基準 時間이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된다. (1)에서와 같은 '말하는 때'가 그 하나요, (2), (3)에서와 같은, 말하는 때가 아닌 어떤 다른 상황의 때가 그것이다. 흔히 前者 즉 말하는 때를 絶對 基準時(absolute time reference)라 하고 後者를 相對 基準時(relative time reference)라 하며, 絶對基準時에 의한 時制를 絶對時制(absolute tense), 相對基準時에 의한 時制를 相對時制(relative tense)라 한다.¹⁾ (1a)의 '늘고

1) 絶對時制와 相對時制의 이 같은 概念에 대해서는 Comrie(1976) p. 2를 참조할 것. 南基心(1978) p. 48에도 출처는 안 밝혀져 있으나 비슷한 개념으로 이 術語들이 쓰였다.

있다'는 絶對時制로서의 現在요, (2a, b)의 '아프다'나 (3a, b)의 '수영하는'은 어떤 다른 상황의 때, 즉, '투덜거린다, 투덜거렸다, 보아라, 보았다' 등의 상황이 놓이는 때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의 現在, 즉 相對時制로서의 現在인 것이다.

특히 複文이나 重文에서 그러하지만 時制가 相對基準時에 의해서도 운영된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는 일은 時制의 올바른 理解를 위해 꼭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점에서 絶對基準時만으로 時制의 특성을 파악하려 했던 앞의 Lyons(1968)의 定義, 또는 基準時에 대해서는 아예 言及이 없는 定義들²⁾보다 다음의 Comrie(1976)의 定義가 우리로 하여금 時制를 보다 올바르게 파악시켜 주는 定義가 아닌가 한다.

"Tense is a deictic category, i.e. locates situations in time, usually with reference to the present moment, though also with reference to other situations." (p. 5)

2

單文에서의 時制는 일반적으로 絶對時制임이 원칙인 듯하다. 그러나 국어의 경우 先語末語尾 '더'와 '있었'이 결합되는 單文의 時制는 일종의 相對時制라 보아 좋을 듯하다.

- (4) a. 창호는 그림을 참 잘 그리더라.
- b. 창호는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렸더라.
- c. 창호는 장차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겠더라.

에서 이들을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보면, 무엇인가 過去의 일을 말하는 듯 하나 그 過去에서 '그리, 그렸, 그리겠'은 다시 어떻게 구분되는지 등 그 時制를 규정하기 어려우나, 만일 이들을 '더'에 의해 暗示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때, 즉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창호를 만나본 때를 기준으로 보면, 그 '그리, 그렸, 그리겠'이 그러한 當時に 각각 現在, 過去, 未來임이 명료히 드러난다.

2) 한 예로 Hockett(1958)의 "Tenses typically show different location of an event in time: *I am eating lunch, I was eating lunch.*" (p. 237)와 같은 定義를 들 수 있다.

- (5) a. 창호는 공원에서 놀고 있어요.
 b. 창호는 공원에서 놀고 있더라.

는 모두 공원에 가서 창호가 노는 것을 직접 보고 와서 하는 말일 수 있는데 (5a)에서는 말하는 때까지도 놀고 있는 것이 계속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임에 反해, (5b)는 ‘더’로 因하여 창호가 공원에서 놀고 있는 現場을 직접 보았다는 점을 더 분명히 暗示하면서 거기서 놀고 있는 것이 그 當時로 現在라는 것을 말해 주는 표현 방식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더’가 말하자면 공원에서 창호를 본 當時, 그러한 相對基準時를 은연중 힘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좋을 것 같다. 이는 다음 例文에서도 마찬가지다.

- (6) a. 우리 집 놈은 요사이 시험 준비에 무척 바쁘요(*바쁘더라).
 b. 저 집 학생은 요사이 시험 준비에 무척 바쁘더라.

에서, 만일 (6a)를 어떤 학생 어머니가 이웃에 가서 자기 아들을 두고 한 이야기라면 ‘바쁘더라’라는 표현은 쓸 수 없을 것인데, 이것은 자기 아들을 늘상 지켜보는 (앞으로도 지켜볼) 차지이므로 아들을 一時 관찰하고 온 듯한 표현은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아예 反해 (6b)는 남의 집 학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학생을 관찰한 相對基準時의 ‘더’를 쓰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법하다. 그리고

- (7) a. 설악산은 벌써 깊은 눈으로 덮여 있었읍니다.
 b. 설악산은 벌써 깊은 눈으로 덮여 있었더라.

의 두 문장은 모두 설악산에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앞엣것은 絶對基準時로 말하였기 때문에 過去形을 썼고, 뒤엣것은 설악산에 갔던 때를 基準時로 하였기 때문에 現在形을 택하였다고 해석됨 직하다. 또

- (8) a. 누나가 두번이나 왔었다.
 b. 누나가 두번이나 왔었더라.

의 차이는 (8a)는 대체로 누나가 다녀간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絶對基準時로 말한 것이요, (8b)는 누나가 다녀간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그 누나가 다녀간 장소에 말하는 사람이 갔을 때를 기준으로 즉 相對基準時를 기준으

로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론바 大過去의 '었었'은 '더' 만큼 명료치는 않으나 역시 相對時制와 관련되는 要素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3

이론바 大過去의 '었었'은 '더' 만큼 명료치는 않으나 역시 相對時制와 관련되는 要素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 (9) a. 너 어디서 또 넘어졌구나.
 b. 너 어디서 또 넘어졌었구나.

에서 (9b)의 '넘어졌었구나'는 (9a)의 '넘어졌구나'보다 좀 더 먼 옛날의 상황을 나타내 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즉 (9a)는 무릎에 핏자국이라도 있는 상태를 보았을 때 쓰기에 적절한 표현인 데 반해 (9b)는 상처 자국이 아물어 넘어졌던 것이 한두 주일 전의 일로 생각되는 상태에서 적절히 쓰일 표현이 아닌가 한다.³⁾

'었었'이 '었'보다 더 먼 옛날의 일을 나타내 준다면, '었었'이 쓰였을 때는 대체로 '있'으로 표현되는 더 가까운 옛날을 相對基準時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實相 '었었'은 이 相對基準時를 여간해서 표면적으로 동반하지 아니한다. 종래 '었었'에 의한 時制를 大過去라고도 부르고 또 過去完了라고도 부르면서 이들이 相對基準時를 같은 문장속에 동반하는 듯이 이해하려 하는 수가 있었다.

- (10) 내가 車에 도착하였을 때 기차는 이미 떠났었다.

3) 최근 南基心(1978)은 '었'과 '었었'의 차이를 前者는 完了相으로서 어떤 동작이 완료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 있음을 보이고, '었었'은 斷續相으로서 완료된 상태가 끊어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위의 例文 (9a)와 (9b)에서 우리는 그러한 차이를 전혀 찾을 수 없음을 보게 된다. 넘어져 있는 채로의 상태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었'이나 '었었'이 쓰인 두 경우가 모두 斷續相일 것이다. 넘어졌던 흔적이 남은 것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두 경우가 모두 完了相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稿을 달리하여 詳論코자 한다.

類가 그때 흔히 인용되던 例文이다. ‘역에 도착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떠났었다’는 그 이전에 일어난 일로 이해하려 한 것이다.⁴⁾ 그러나 (10)은 필자에게는 非文이거나 거의 非文에 가깝다. ‘있었’은 일반적으로

- (11) a. 나는 그때까지는 수학을 전공하려 했었다.
 b. 학생들이 여러명 왔었어요.

에서처럼 相對基準時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드러난다 해도 (10)에서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

- (12) 김 피고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런데 김 피고는 일심 공판에서는 3년형을 선고 받았었다.

에서처럼 어떤 같은 계열의 이야기가 앞에 나타나서 거기에 相對基準時가 드러나는 것이 보통이다. (12)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때가 말하자면 相對基準時가 되어 3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그보다 앞선 상황임을 보여 준다.

‘있었’이 相對基準時를 여간해서 표면상 동반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어떤 相對基準時를 想定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듯하다. 가령 (11a)에는 ‘그러나 그 이후에 사정이 달라졌다’, (11b)에는 ‘나중 돌아갔다’와 같은 어떤 상황을 想定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9b)에도 ‘그래서 여기 상처 자국이 생겼구나’類를 想定하여 相對基準時를 생각해 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있었’을 ‘있’에 앞선 상황을 가리키는 機能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해도 그 쓰임은 그리 간단치 않다. 창호는 오늘 넘어졌고 준호는 그저께 넘어졌다 해서 “창호는 오늘 넘어졌고, 준호는 그저께 넘어졌었어요.”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있었’이 과연 어떤 어떠한 때에 쓰이는지는 좀더 면밀히 考究되어야 할 것 같다. 다만 여기서는 ‘있’이 絶對時制로서의 過去를 대표하는 것에 反해 ‘있었’은 대체로 ‘있’으로 나타나는 어떤 過去 상황의 때를 기준

4) 이는 대체로 朴勝彬(1935)에서 비롯되는 듯하다. “李氏가 金君을 錢別하라고 어제 막車로 仁川에 왔다. 그러나 金君이 탄 배는 벌써 떠났었다.”나 “새로 注文한 스케트가 前月 末日에 到着하였는데 그때 漢江人 얼음은 다 녹았었읍니다.”를 예로 하여 ‘있었’이 그 앞 ‘있’의 時期를 표준으로 그보다 앞서 完了된 것임을 보이는 것이라는 설명이 그것이다. (p. 328) 그러나 우리는 위의 例文이 정상적인 국어라고 믿지 않는다.

으로 하는, 즉 相對時制로서의 過去를 대표하는 要素가 아니겠느냐는 점만을 생각해 보았다.⁵⁾

4

相對時制의 개념이 참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單文이 아니라 複文이나 重文에서다.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아라’와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다”에서 ‘놀고 있는’의 時制는 다른 어떤 상황인 ‘보아라, 보았다’의 때와 관련되어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 그 한 예다.

- (13) a. 다같이 노래하고 춤춘다.
b. 다같이 노래하고 춤추었다.

의 ‘노래하고’가 ‘춤춘다, 춤추었다’의 서로 다른 때를 기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도 그 좋은 예다.

앞에서도 잠시 밝혔듯이 우리는 ‘놀고 있는’(또는 ‘뛰는’) 및 ‘노래하고’와 같은 형태를 언제나 現在 時制를 나타내 주는 형태로 이해코자 한다. 만일 (13b)에서 ‘노래하고’는 실제로 過去의 상황에 대한 기술이므로 過去形이라 한다면, ‘노래하고’가 때에 따라서는 現在를, 때에 따라서는 過去를, 또 때에 따라서는 ‘노래하고’가, 때에 따라서는 ‘노래했고’가(‘그애들은 노래했고 우리는 그림을 그렸다’에서처럼) 過去를 나타낸다고 해야 하는 혼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相對基準時를 설정하면 ‘놀고 있는, 뛰는, 노래하고’를 언제나 現在로 파악하는 테 아무런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 ‘보았다’의 때를 現在로 하면 ‘놀고 있는, 뛰는’은 바로 눈 앞에서 전개되는 現在의 상황이며, (13a)의 ‘노래하고’도 ‘춤춘었다’를 現在로 확 원시켜 놓은다면 노래하는 일은 춤추는 일과 동시에 行해지고 있는 상황인

5) ‘었었’이 相對時制로서의 過去라면 앞의 ‘었’은 過去 時制를 대표하는 요소며, 뒤의 ‘었’은 어떤 相對基準時를 암시하는 요소라고 분석합적하다. ‘었었’을 한 形態素로 보고 絶對時制로서의 大過去, 또는 前過去(pre-past)나 먼 過去(remote past)로 이해하여도 ‘었었’의 機能은 결국 마찬가지로 파악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前者의 길이 국어 時制의 體系化를 보다 쉽게 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것이다.

複文에 包有되어 있는 문장, 重文의 앞 부분에 接續되어 있는 문장의 時制는 원칙적으로 이처럼 相對時制로 보아야 時制體系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듯하다. (13a)의 ‘노래하고’나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아라’의 ‘놀고 있는’은 絶對時制로 보나 相對時制로 보나 現在여서 어느쪽으로 보아도 좋겠으나 역시 이 경우에는 相對時制로서의 現在로 보는 것이 一貫性 있는 길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14) 지금 저기서 놀고 있는 아이를 나는 지난 여름 해수욕장에서도 만났었다.

의 ‘놀고 있는’은 어떠한가. 같은 包有文 안에서의 ‘놀고 있는’인데도 여기서는 ‘만났었다’와는 無關한, 말하는 때의 現在다. 이는 열핏 包有되는 문장의 時制도 絶對時制로 파악되어야 할 경우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실제로 (14)에서는 ‘지금’이란 부사가 쓰이고 있다. 만일 ‘놀고 있는’이 ‘만났다’에 相對되는 時制라면

(15) 나는, 그 때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다.

에서처럼 ‘그 때’를 쓰자 ‘지금’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例文(14)의 ‘놀고 있는’의 時制를 파악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제시코자 한다. 하나는 방금 말한대로 ‘지금’이라는 부사의 쓰임과 관련시켜 그것을 絶對時制로 파악하는 길이다. 包有되어 있는 문장은 결국 그 深層構造와 관련되어 파악될 것인데, (14)의 ‘지금 저기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와 ‘지난 여름 해수욕장에서 내가 그 아이들을 만났었다’는 각각 絶對基準時에서 말해진 것이며, 따라서 ‘놀고 있는’의 時制가 ‘만났었다’의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絶對時制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한 길은 (14)에 어떤 상황을 하나 想定하고 그 상황의 때를 相對基準時로 하여 ‘놀고 있는’의 時制를 相對時制로 파악하는 길이다. 실제로 지난 여름 해수욕장에서 만난 아이는 ‘지금 저기서(공원쯤에서) 놀고 있는’ 아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가 아니다. 해수욕장에서 만난 아이는 해수욕장에 있던 아이이며, 지금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가 아니다. 따라서 ‘놀고 있

는'의 時制가 '만났었다'의 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며, 여기서 우리는 '놀고 있는'과 직접 관계되는 어떤 상황을 想定할 필요성과 또 그 가능성을 깨닫게 된다. (14)를

- (16) 지금 저기서 놀고 있는 아이를 (지금 나는 보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나는 지난 여름 해수욕장에서도 만났었다.

와 같이 교쳐 보면 '지금 보고 있다'와 같은 상황이 想定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 '놀고 있는'은 '보고 있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때를 相對基準時로 하는, 相對時制로서의 現在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 後者の 길을 태하면 '놀고 있는'과 같은 冠形形의 時制를 늘 一貫性 있게 相對時制로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나 저 앞의 해석 방법과 어느것이 더 나을지는 아직 확고히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어느 길로 보든 우리로서는 '놀고 있는'이 어느 경우에나 現在 時制를 보이는 形態라고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점만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⁶⁾

5

以上에서 우리는 국어의 時制를 파악하는데 있어 相對時制의 개념이 필요함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앞으로 국어 時制를 體系化하는데도 이 相對時制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 (17) a. 농부는 밭을 갈고, 아내는 씨를 뿌렸다.
 b. 농부는 밭을 갈았고, 아내는 씨를 뿌렸다.

에서 '갈고'와 '갈았고'의 차이는 무엇에 연유되는지, 또 '뛰는, 뛴, 뛸, 뛰던'과 같은 冠形形의 時制(및 相이나 法)과 '된다, 뛰었다, 뛰리라(뛰겠다), 뛰었었다, 뛰더라' 등과 어떠한 對應 관계가 있는지 등등이 국어 時制(및

6) 南基心(1978)은 국어 時制의 基準時가 絶對基準時나 相對基準時 (用語는 달리 썼지만) 어느 하나로 일정치 않고, 무질서함을 多角度로 보이려 하였고, 또 그것으로 국어가 時制는 없고 相이 있는 언어임을 주장하는 論據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국어 時制의 基準時는 결코 무질서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도 따로이 論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相・法)의 전반적인 體系化와 함께 좀더 면밀히 考究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南基心(1978), 國語文法의 時制問題에 關한 研究 (塔出版社)
- 朴勝彬(1935), 朝鮮語學 (通文館 1972 複刊)
-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ckett, C. 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 Palmer, F. R. (1968), *A Linguistic Study of the English Verb* (University of Miami Press)